

# 직관적 몸짓으로 풀어낸 '가식'과 '솔직'

ACC 한·일 국제협력공연 '솔직히'...24-25일 예술극장1

## 사후세계·전생·윤회 소재...쉽고 대중적인 현대무용으로

죽음 그 이후와 이전, 사후세계와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무용수들의 몸짓으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4-25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ACC 국제공동창·제작 공연 '솔직히(Frankly)'를 선보인다.

올해 열리는 ACC 국제협력공연 첫 번째 작품인 '솔직히'는 한·일 공동 창작공연으로 사후세계와 전생, 윤회를 소재로 한 무용극이다.

이승에서의 가식이 저승에서의 솔직함으로, 저승에서의 가식이 이승에서의 솔직함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관객에게 질문한다.

현실과 비현실의 공간 속 관객들은 잠시나마 일본의 우키요(UKIYO) 개념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키요는 떠도는 세계라는 의미로 '잠시 동안만 머물 현세라면 조금 들뜬 기분으로 마음 편히 살자'라는 사고 방식을 지닌 긍정적 위앙스의 예술용어다.

단순하지만 비사한 소재로 재미있게 작품을 풀어내는 한국 무용단 고블린파티(Goblin Party)와 참신한 발상을 그대로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일본 무용단 케다고로(Kedagoro)가 출연한다. '사후'에 관한 이야기를 '달았지만 다른' 양국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솔직히'는 지난해 국제협력공연 본 공연 선정 이후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진행한 공동창작 과정을 통해 보다 쉽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현대무용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두 무용단의 공동 관심사였던 사후세계와 전생, 윤회를 그들 특유의 재치 있고 직관적인 몸짓으로 풀어낸다.

고블린파티는 '굴러가지 않는 네모'를 굴리는 것에 몰두하며 구성원 모두가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무용단이다. 케다고로는 '무용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안무가 시모지마 레이사(Shimaji Reisa)와 현지 무용수로 구성된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이다.

공연 관람연령은 10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다. ACC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예매나 전화(1899-5566) 예매 모두 가능하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공연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무용단체가 만나 특유의 해석



과 공감의 정서로 풀어낸 ACC 기대작"이라며 "달았지만 달지 않은 두 나라의 모순적이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ACC는 2022년부터 해외 예술단체·공공극장과 협력, 아시아 문화자원을 소재로 동시대적 해석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0여 편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올해 국제협력 공연 '솔직히'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영국, 홍콩과의 협력공연인 '1C'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독일과 협력공연인 세 번째 전장을, 11월에는 키르기스스탄 국립극장과 공동 창·제작 공연 '세메데이' 본 공연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오는 24-25일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오르는 ACC 국제협력공연 첫 번째 작품 '솔직히(Frankly)' 공연 모습.

# '흰'이 담아낸 치유와 재생

이미자 초대전, 내달 6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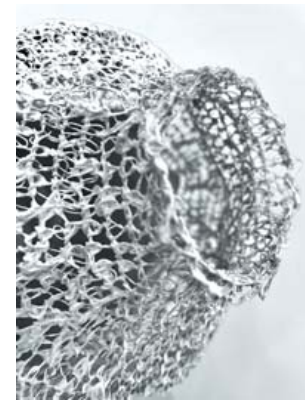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이 2025년 첫 기획초대전으로 이미지 작가를 초청, '흰'의 상징적 의미를 조명한다.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흰, ing' 전시이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조각보 캔버스에 회화적 재료를 활용해 제작한 조형 회화와 오브제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이 자리한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의 정착지로, 지역사회의 치유와 재생을 이끌어온 공간이다. 특히 호랑가시나무는 한강 작가의 소설 '흰'에서 흰색이 서늘한 감정과 결핍을 담아 내면서도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의미와도 연결된다.

이 작가의 작업 '흰, ing' 역시, 한강의 소설 '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서늘한 감정을 치유로 승화시킨 예술적 과정이다.

한강이 '흰'에 대해 인간의 결핍과 상실, 그것이 내포한 깊은 의미를 통해 인간 존재를 탐구했다면, 이 작가는 이를 시각예술로 확장하며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구조물로 형상화해 새로운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미자작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업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작가는 금속 공예를 통해 조형적인 시각 작품을 도입했다.

작품의 주요 색채인 '흰색'은 작업과정을 통해 승화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의 흔적이다. 작가는 초기 작업에서 강렬

한 색채를 사용해 자신의 감정, 특히 욕망을 표현했다.

이후 작업에서는 흰색·검정·빨강이라는 단순한 색채를 사용해 감정의 깊이를 강조하고, 텅 빈 내면의 공간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2021년 전시 '흰, ing'가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2025년 전시 '흰, ing'는 감정과 기억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와 오브제를 통해 작가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미자 작가는 "한강 작가의 '흰'이 과거의 아픔에 대한 마침표라고 한다면, 나의 '흰'은 진행의 의미"라며 "작업을 통해 아픈 기억과 결핍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최명진 기자

# 2025 을사년, 소원을 빌다

한국전통채색화협회 세화展...24일까지 오늘갤러리

한국전통채색화협회(회장 최숙의)가 지혜의 상징 푸른뱀의 해를 맞아 세화전을 마련했다.

오는 24일까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늘갤러리(남구 덕남길 7)에서 열리는 '2025 을사년 소원을 빌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정 김생수 선생의 '정사신장부' 그림을 비롯해 새해 가정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회원 27명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특유의 기법과 소재를 활용해 한국 이미지가 오롯이 표현된 창작·전통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최숙의 회장은 "을사년 새해 길상을 뜻하는 멋진 작품들로 세화전을 열게 됐다"며 "열정적인 작업을 통해 한마



최숙의작 '복문자도'

음 한뜻으로 협회 활동에 힘을 모아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 기증 받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을 연중 기증 받는다.

수증 대상은 아시아 문화 관련 문화재적 가치와 연구, 전시 활용도가 높은 실물 자료다. 아시아 전통문화를 비롯해 전통의복, 음식문화, 전통음악, 공연, 공예, 종교, 신화·설화, 도시문화, 건축, 세계유산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가 주요 대상이다.

기증받은 자료는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 영구

보존돼 기획 전시를 비롯한 교육·연구·문화사업 등에 적극 활용된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은 2017년 ACC 내 등록된 전문 박물관으로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및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위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를 수집해 왔다. 현재 아시아문화박물관은 17-20세기 인도네시아 생활용품과 예술품으로 구성된 누산타라 수집품,

인도네시아 전통가면극 인형(외양)과 가면(토펙)으로 구성된 무카무카무 수집품, 중앙아시아 키르기스 민족의 전통 가펄(알라기이즈, 쉬르타) 등 아시아 문화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기증 희망자는 기증신청서와 자료(유물) 사진 등 관계 서류를 ACC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ACC 연구조사과 자료관리팀 기증담당자(062-601-4533, yeopo81@korea.kr)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남도 밥상

유지하는 사람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광주매일신문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품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